

영문지의 2009년 impact factor가 2.369로 발표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 영문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의 2009년도 impact factor가 2.369로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2008년의 1.787에 비해 큰 도약을 한 데 대해 회원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동안 영문지를 위해 노력해 오신 영문지 편집위원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 영문지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욱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영문지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논문을 투고하고 인용해주셔야만, 영문지의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 향상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영문지 편집위원들도 물론 더욱 더 노력해야겠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더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차원에서도 우리 영문지가 국제적 학술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더욱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대표적 학술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의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것을 아울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회원 여러분들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장 최길영

영문지 편집위원장 하창식 올림